

10월 20일 용두동에 사는 지역 발명가인 홍경중(49세)씨를 취재하였습니다.
 홍경중씨의 발명품인 기름분사기는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없애고 생활에
 편리하도록 만든 발명품입니다.

김 아 란
 서울 청량고·발명기자

1. “기름 분사기”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발명품입니까?

→ 쉽게말해 자동차 부품을 기름칠해주는 기계입니다.

그 기계를 살펴보자면 검은 네모 모양의 큰 철 박스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 체크 모양의 동그란 통이 있습니다.

그 통안에 자동차 부품을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통이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기름이 뿜어져 나와 쉽게 부품을 기름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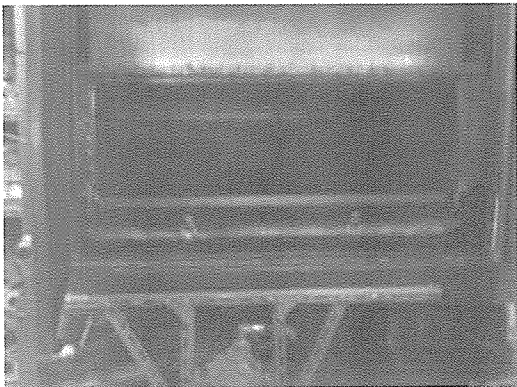
2. “기름 분사기”를 발명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?

→ ‘기름 분사기’를 발명하기 전에는 부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기름칠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모되었습니다.

특히 일이 바쁜 날은 시간이 없어 제대로 기름칠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.

시간도 절약하고 꼼꼼하게 기름칠을 하기 위해 이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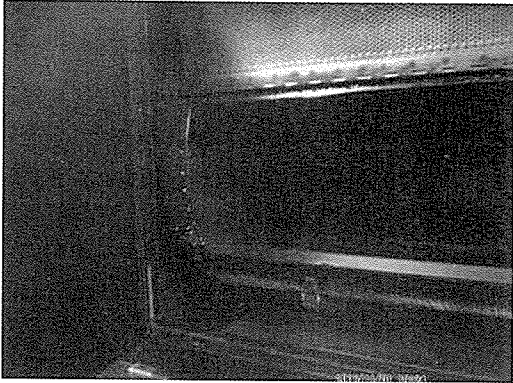
3. ‘기름 분사기’라는 발명품이 생각보다 부피가 커 만드실 때 힘든점이 있으셨을텐데 어떤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니까?



→ 물론 부피가 크고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여 저 혼자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. 주위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.

아무래도 같이 작업을 하다보니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.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생긴 것 같구요. 발명품으로 더 값진 것을 얻은 기분입니다.

4. 그렇다면 발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특별한 정의가 있나요?



→ '발명 별거 아니더라~'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생활의 발견이라는 말이 있죠?
 생활 속에서 자신이 겪는 불편함을 새롭게 개선하여 이롭게 만드는 것도 발명이라고 할 수 있죠.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예이고요. 거창하게 만들어야만 발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여러 발명가들도 실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경우가 많잖아요.
 발명은 삶을 이롭게 만드는 도구라고도 할 수 있죠.

지역 발명가 홍경중씨의 발명에 대한 정의는 미래의 발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발명이란 무엇인가? 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.

발명은 삶을 개선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.

대한민국의 지역 발명가들이 미래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지 모두의 시선이 주목된다.

